

퍼스널 케어 시장, 유기농 및 식물 유래 성분 제품의 성장 기회

“코로나-19사태로 인해 수요가 감소한 퍼스널 케어 시장의 성장 전망과 트렌드”



출처 : Frost&Sullivan Blog, Global Personal Care Active Ingredients Market ... Soars, Sep 17, 2020

- ❏ 퍼스널 케어 관련 시장이 2019년 39억 달러에서 2025년 48억 5,000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(연평균 3.7% 성장)
 - 퍼스널 케어 관련 시장의 성장은 가처분 소득 증가,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원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, 퍼스널 케어 제품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 채널 확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임
 - 코로나-19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이어지면서 메이크업, 향수, 보습제 및 자외선 차단제와 같은 개인 미용용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, 퍼스널 케어 관련 활성 성분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음
- ❏ 전 세계적으로 개인 위생용품 기업들은 소비자 행동 변화에 맞추어 유기농 제품, 식물 기반 제품, 다기능 제품을 개발하고 있음

- 최근 소비자들은 케어 제품을 고를 때, 수분 보충, 보습 및 노화 방지 성분을 중요하게 생각
 - 퍼스널 케어 업계는 관련 연구개발에 투자를 늘리고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혁신을 추구해야 함
 - 안티에이징 퍼스널 케어 제품은 **인구 고령화의 심화**로 연평균 6.5%에 달하는 성장이 예상됨
 - 비스페놀 A(BPA) 및 프탈레이트와 같이 퍼스널 케어 제품에 사용되던 **합성 및 유해 화학 물질**은 퍼스널 케어 업계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도 했음
 - 소비자들은 파라벤, 프탈레이트, 나트륨 라우릴 설페이트(SLS), 나트륨 라우레스 설페이트(SLES) 및 미네랄 오일과 같은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화장품을 찾고 있음
 - **미니멀 뷰티 트렌드**로 여러 기능과 특성을 동시에 지닌 성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
■ 화장품 및 미용 산업의 변화하는 환경은 세계 각지의 주요 트렌드를 보여줌

- 북미의 경우, 높은 소득으로 인한 고급 화장품 및 스킨케어 제품으로 인한 수요 증가 등 전자 상거래를 통한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온라인 유통 채널 구축 필요
- 아시아-태평양의 경우, 젠더 뉴트럴 제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기업은 여성 및 남성 소비자 사이에서 사용자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,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미용 및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
- 유럽의 경우, 퍼스널 케어 활성 성분 연구개발 및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지역은 코로나-19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은 개인 위생용품 지출을 줄이고 있지만, 코로나-19가 종식되면 수요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음
- 중동의 경우, 무슬림 인구 증가로 할랄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며 지속 가능 청정 활성 성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
-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의 경우, 뷰티 산업이 GDP의 2%를 차지하므로 활성 성분 시장은 국가 경제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야인데, 코로나-19사태는 브라질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, 브라질의 화장품 소비도 크게 감소 중

■ **(결론)** 퍼스널 케어 업계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트렌드에 맞는 혁신을 추구해야 함

- 코로나-19로 메이크업과 같은 개인 미용용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퍼스널 케어 시장에도 악영향
- 안티에이징 퍼스널 케어 제품은 **인구 고령화의 심화**로 연평균 6.5%에 달하는 성장이 예상됨

- 기술사업화 이슈&마켓 보고서는 해외시장정보 전문업체(Frost & Sullivan, Lexisnexis 등)에서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보고서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공식적 견해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- 본 보고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(<https://www.innopolis.or.kr>)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-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하며,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